

석유화학 수출증가율 크게 둔화

산자부, 11월 1-20일 0% 불과 ... 플라스틱은 3.7% 늘어 호조

11월 수출이 260억7000만달러에 달해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석유화학은 부진했다.

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상품 수출입 동향(잠정치)에 따르면, 11월 수출은 260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% 증가하면서 7월 이후 5개월 연속 2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.

11월 수출은 엔화 약세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석유제품(62.4%), 일반기계(38.0%), 자동차부품(33.8%), 철강(15%) 등 4개 품목이 2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를 지속했다.

자동차(6.7%), 반도체(6.7%), 석유화학(3.5%) 등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박(-13.5%), 무선통신기기(-0.1%), 컴퓨터(-8.4%), 가전(-8.2%), 섬유(-3.8%) 등을 감소했다.

석유화학 수출은 11월 1-20일 기준 10억1200만달러에 그쳤고, 전체 화학제품은 14억6800만달러로 1.2% 증가했다.

반면, 플라스틱은 1억9500만달러로 3.7% 증가해 1-11월 수출증가율 1.3%를 크게 초과했다.

화학 관련제품 수출실적

(단위: 100만달러, %)

구 분	2004			2005				
				11.1 - 11.20		1.1 - 11.20		
	수출액	증가율	비 중	수출액	증가율	수출액	증가율	비 중
총수출	253,845	31.0	100.0	15,234	9.4	248,384	12.1	100.0
중 화학제품	221,388	34.6	87.2	13,686	11.9	222,342	15.5	89.5
○ 화학제품	25,203	34.9	9.9	1,468	1.2	26,362	20.7	10.6
- 석유화학	17,015	42.8	6.7	1,012	0.0	18,408	24.8	7.4
○ 석유제품	10,203	54.1	4.0	1,046	41.5	13,214	51.1	5.3
경공업제품	25,572	6.2	10.1	1,271	-10.2	22,423	-1.0	9.0
○ 플라스틱	3,275	28.2	1.3	195	3.7	3,264	13.8	1.3
○ 타 이 어	1,928	22.6	0.8	86	-17.7	1,983	18.3	0.8

지역별 전체 수출은 1-20일 기준 중국(21.0%), EU(14.5%), 중동(14.5%), 아세안(7.9%)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미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, 자동차, 반도체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, 자동차부품, 일반기계의 호조로 0.9% 증가했다.

<화학저널 2005/12/05>